제72호 잘 못 되어 가는 강의 바로 잡기 : 2. 문제의 원인을 안다

지난 호에는 잘못되어 가는 강의를 바로 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의 마음자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릴 경우 사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일단 학생들의 학습성취를 좌우하실 수 있다는 기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호는 두 번째 단계로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는 대신 "상황"(circumstance, context, situation)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강의가 잘못되는 이유가 가지각색일 수 있겠지만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1) 강의 진행과 관련된 문제 (진도, 페이스)
학생들이 시험을 엉망으로 치는 경우, 강의실에 들어오는 표정이 뭔가 불만에 가득 차서 마지못해 들어오는 듯한 경우, 질문의 요지조차 이해하지 못해 어리벙벙해 하는 경우는 강의 진도가 항상 너무 빠르거나 많은 내용이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수도꼭지에 입을 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이 해소되어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물을 마시려는데 소방수도관을 입에 대 준 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으악!!! 그렇습니다. 강의 내용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과 속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도를 조절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강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 (난해도, 적절성)
학생들이 강의 종료 시간 전에 소란스럽게 책가방을 싸는 경우, 강의 도중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는 경우, 리포트에 정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볼 수 없는 경우는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필요성(need)과 무관할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겨우 들어 온 학생들을 앞에 놓고 고차원 미분방정식을 칠판에 가득 채우거나 난해한 화이트헤드의 논문을 줄줄 읽어 내려가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잉???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첫날 하루 정도.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얼굴이 누렇게 뜨게 됩니다. 사람의 동기의식은 상당히 까다롭기 짝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따분해하고, 수준보다 너무 높으면 신경을 끄게됩니다.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약간 웃도는 것이 지속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에 구체적인 예를 적절하게 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3)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이 불손하게 보이는 경우, 교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 교수님과 얼굴이나 눈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는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유대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의 사제지간이란 예전과 달리 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저절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일방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대하실 때에 자신의 언행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비구어적 메시지(말투, 몸짓 등)가 커뮤니케이션 효력을 7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잔소리 코너>>
물론 잘못되어 가는 강의의 원인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매우 깊숙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를 쉬운 문제로 왜곡하거나 착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해결방법의 첫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조벽, 2000